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전매체> 11.18. (금) 16:00		-
담당 부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3-230-5330)
		담당자	주무관 이승섭 (043-230-5376)

창업·벤처 정책,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위촉 및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위촉

□ 이영 장관과 청년패널들 간 청년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위촉과 함께 청년보좌역,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등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개요>

- [**행사명**]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일시 · 장소**] 11.18.(금) 15:00 ~ 16:30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울 구로구)
- [**참석**] 이영 장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명예공무원 등 청년 50여명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위촉, 청년정책 소개,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먼저, 이영 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이하 2030 자문단)' 단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 팁스(TIPS)에 선정된 여성혁신 창업기업이 친환경 펄프소재를 활용한 액자 형태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내 청년분과, 청년들로 구성된 명예공무원단, 국민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소통채널을 운영해 왔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촘촘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구성됐다.

2030 자문단은 최근 채용된 청년보좌역 이석호씨가 단장을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20명의 '2030 자문단' 모집에 총 133명이 지원해 2030 자문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벤처 창업자, 학계, 소상공인 컨설턴트, 취업전문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관심과 경력을 보유한 청년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 <참고 2> 2030 자문단 명단

'2030 자문단'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정책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입안·추진·평가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청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정책을 소개했다.

소개된 정책에는 창업 생태계 글로벌 진출·유입 활성화,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창업펀드,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 장관과 청년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자들은 벤처인증 절차 개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새로 위촉한 '2030 자문단' 단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다"면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도 다양한 청년 소통채널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창업진흥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명진 (044-204-7950)
		담당자	서기관	노성현 (044-204-7661)
			주무관	이규화 (044-204-76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개요

□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자문단원, 명예공무원 등 청년이 장관과 함께 소통(2030 자문단 위촉식 포함)

○ 청년이 정책을 직접 건의하고, 발전된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

□ 행사 개요

○ **(행 사 명)**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일 시)** 11. 18. (금), 15:00 ~ 16:30

○ **(장 소)** 글로벌창업사관학교(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지타워10층)

○ **(참 석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혁신정책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명예공무원, 국민서포터즈 등 약 50명

○ **(주 최)**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참고
글창사 투어	15:00~15:05	5′	▪ 글창사 소개	
	15:05~15:10	5′	▪ 글창사 투어	
1부 (위촉식)	15:10~15:12	2′	▪ 개회 및 행사소개	사회자
	15:12~15:20	8′	▪ 위촉장 수여	
2부 (토크콘서트)	15:20~15:30	10′	▪ 청년문답(아이스브레이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5:30~15:40	10′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청년정책 소개	창업진흥정책관
	15:40~16:20	40′	▪ 패널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패널
	16:20~16:30	10′	▪ 현장질의	

참고 2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명단 및 소개

□ 단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권혜진	강북청년창업마루	센터장
2	김기범	연암공과대학교(전기전자공학과)	교수
3	김성진	베리치컴퍼니	대표
4	김영종	현대엘리베이터	매니저
5	김지현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팀장
6	남지원	㈜인사이트베슬	대표
7	문선영	아트맨 연구소	대표
8	박준호	㈜피터페터	대표
9	송기태	제르나바이오텍	대표이사
10	신소현	주식회사 아이쉴드	대표이사
11	원규희	도도한콜라보㈜	대표이사
12	윤형윤	(주)에피젠	대표이사
13	이치원	㈜메디인테크	대표이사
14	이효정	라온제나	대표
15	이후만	㈜엑소시스템즈	대표
16	임동영	우당네트웍주식회사	대표이사
17	임성환	래빗컴퍼니	대표
18	정혜인	주식회사 아이트럭	대표
19	조은희	호감부자	대표
20	최용석	쿼드비	대표이사

□ 주요 단원 소개

❶ (김기범) 김기범 연암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연구한 연구원 출신이다.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12기에 입교해 록시드라는 전자통신업체를 창업해 현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에서 청년들의 문제의식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❷ (김성진) 김성진 베리치컴퍼니 대표는 13년간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제휴 등 직무를 수행했고, 현재 경영컨설팅 회사를 창업해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벤처투자, 창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벤처투자창업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도서도 출간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강의 경험도 있는 만큼 청년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❸ (정혜인) 정혜인 ㈜아이트럭의 대표는 해외에서 대학 졸업 후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업계를 두루 거치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알게된 국내 중고트럭 거래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폐쇄성을 개선하는 시장 혁신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정혜인 대표는 창업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전용자금, 팁스(TIPS)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창업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문해 창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30 자문단'에 지원했다.

❹ (김영종) 김영종 현대엘리베이터 매니저는 과거에 유통 대기업 동반성장팀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과 창업 청년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화를 기획했던 경험이 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백년가게 밀키트 상품화를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30 자문단'에 참여했다.

❺ (조은희) 조은희 호감부자 대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취업특강, 방송출연,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문과생들이 제한된 취업 기회로 고통받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2030 자문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